

People & Life

농협 전남본부장 노시간담회서 농정현안 설명



김용복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최근 농협 순천시지부에서 열린 '2010년 전남농협 권역별 노시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그린화순, 화순군장학회에 1천만원 전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인 (주)그린화순(대표이사 최봉주·왼쪽)은 최근 화순군장학회에 장학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화순군 제공>

호남대 '산학협력사업 가족회사 교류회'



호남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단장 양승혁)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2회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가족회사 교류회'를 가졌다. <호남대 제공>

LH 광주·전남본부 '청렴 선포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윤)는 최근 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선포식'을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LH 광주전남본부 제공>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 책 펴낸 아버지 신제섭씨

“지애, 힘들게 운동했던 시절 잊지 말라고 책 썼다”

“지애가 골프를 시작했을 때부터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특히 지애가 세계적인 선수가 돼 정상에 있을때 가끔씩 이 책을 들춰보면서 힘들게 운동했던 옛날을 떠올리면 마음을 다잡고 조심으로 돌아가 수 있겠다 싶어 계획보다 빨리 책을 내게 됐죠.”

“골프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의 아버지 신제섭(50)씨가 ‘파이널 퀸 신지애, 골프로 비상하다’란 책을 최근 펴냈다. 신씨는 지난 11일 신지애와 함께 겨울훈련차 내려온 담양 가산골프장에서 이같이 출간 소감을 밝혔다.

“그간 못했던 말 글로 전해주고 싶어”

이 책 속에는 신지애의 골프 인생과 성장 과정, 가족 이야기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특히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후 들어온 조의금으로 골프를 시켰던 일, 경제적인 여유가 안돼 골프장을 찾아 부탁하며 실전연습을 했던 일, 그리고 역경을 딛고 딸이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했던 때와 LPGA 시상식장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때 등 가슴울렁거리는 사연들이 실려 있다.

신씨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옛일을 쓰다 보니 그때의 아픔과 감동이 밀려와서 잠깐 쉬었다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책을 쓰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자식들 앞에서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는 신씨는 “지난해 LPGA 시상식장에서 지애의 연설을 듣고 감격과 보람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 순간을 신씨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아빠의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눈시울이 뜨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었다. ‘지애엄마, 지애엄마!’ 마음 속으로 무수히 이름을 불렀다.

지난 9일 출판기념 간담회 자리에서 딸에게 뒤늦게 책을 주었다는 신씨는 “지애가 책을 받고서 ‘아빠 수고하셨어요’라며 짧게 인사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버지의 출간에 대해 신지애는 “아빠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지금은 절반정도 밖에 읽지 못했지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운동했었구나 새삼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힘들었던 당시 아빠의 마음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지애는 특히 “앞으로도 아빠가 책을 쓰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목회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3권의 성경연구서를 썼던 신씨는 “이번 책은 정확히 15일만에 썼다”면서 “매일 일기형식으로 시험이나 훈련을 끝낸 후 정리 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그간 업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당시 고생하는 어린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책을 냈다”고 말했다.

“주니어 선수·부모들에 도움 됐으면”

신씨는 딸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해서도 책 속에 다음과 같이 털어놨다.

책을 통해서나마 지애에게 말하고 싶다. “지애야, 아빠는 이제 너의 전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한다. 그러나 혹시 속에 품어 놓은 것이 있거든 혼자 힘들어서 말고 아빠에게 다 내놓을 수 없겠니? 너는 혼자 아니란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사는 게 아니냐.” 하고 말이다.

신씨는 “이번 책에서 둘째딸 지원아와 막내아들 지원이 얘기를 많이 못했다”며 “지애만큼 돌보지 못했는데도 바르게 키운 것이 너무 고마울 뿐이다”고 책에 담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신씨는 “지애를 키워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았다”며 “주니어 선수와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출신 학생 85명에 장학금 1억2300만원

지원장학회

(재)지원장학회(이사장 이웅평)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 85명에게 1억2천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지난 13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도건설 회의실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둘대 입학아 씨 등 대학생 38명과 광주 대광여고 김다은양 등 고등학생 47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모두 1억2천300만원을 전달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PC방·노래방·사우나실 등 한곳에... 훈련 집중 가능”

목포축구센터서 전문 중 연변 프로축구단 김광주 감독

“비록 중국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활동 중이지만 이번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으로 팀을 가다듬어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에서 해외팀으로는 유일하게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 연변프로축구단 김광주(43) 감독은 이같이 밝히며 “선수들이 운동하기엔 최고 시설인만큼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조선족 최초의 중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이며 연변축구의 아이코너로 통한다.

김 감독은 “한국축구는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축구강국이며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나라다. 중국의 축구구단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전지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자매학교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목포축구센터는 숙소와 경기장이 함께 있어 전지훈련에서 숙소와 경기장이 떨어져 있어 숙소와 경기

장을 오가는 이동시간이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 있어 좋다”며 “특히 약천후에는 하프투구장과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들의 지속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PC방과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사우나실이 갖춰져 있어서 선수들의 여가시간 활용 등 훈련과 여가시간 활용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목포 전지훈련에 참가한 연변축구단은 3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6일 연변으로 돌아간다.

김 감독은 “좋은 환경과 좋은 훈련장 및 경기장이 있는 만큼 연변축구단과 장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전지훈련을 하면서 많은 협조를 받았으며,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연변축구단은 전부 조선족으로



구성돼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소수민족 축구팀이며, 투지가 강하고 민첩하고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1994년 중국 프로리그가 시작돼 1부 리그에서 활약하였고, 여러 명의 대표팀 선수를 배출했다. 하지만 현재는 구단 재정이 악화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성적이 떨어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美 배우 그레이브스 별세

미국 TV 첩보 드라마 ‘미션 임파서블’에서 특수요원 팀장으로 출연한 배우 피터 그레이브스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연합뉴스



내방

▲송귀근(광주시 행정부시장)씨 ▲신이섭(광주상무프로축구단장)씨 ▲이연(광주시 체육지원과장)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중친회

▲함평노씨 한림공 중친회(회장 노병철) 정기총회=16일(화) 오전 11시 광주상록회관 3층. 018-627-0333.
▲가락 광산구 중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9일(금) 오전 11시 중친회관 2층. 062-944-1951.

알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발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탐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급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로 체형=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클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승산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

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제가 주.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모집

▲광주시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농장 회원 모집=19일까지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회비 없음. 농장 운영기간은 10월까지 개인당 16명(5명) 문의 062-603-9853.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마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

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휴폐선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진원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상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풋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장권 선발=바로 불을 차 흠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할,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62-671-3693.

부음

▲한길레씨 별세 박남국((주)해태음료)·안웅(나주경찰서)·성대(자영업)·남초·안실·금실씨 모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순례씨 별세 강대성·대철·대승·대길·대숙씨 모친상=발인 16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순태씨 별세 영복(세종대학교 교수)·대용·영심·영희·해영씨 부친상=발인 16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조인성씨 별세 정희·대화·복희·광희·옥희·수희씨 부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이차범씨 별세 김광태(광주로타리클럽 회장·(주)한진레미콘 대표이사)씨 모친상=발인 17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순덕씨 별세 송길원(광주일보 무안지사장·예지종합건설대표)씨 모친상=발인 17일(수) 무안병원장례식장.

마음까지 편안 한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오남철님 (남/88세)
주/부/모: 오영중 / 오영희, 오희영 / 박성숙
오영구 / 김연경, 오영만 / 박영숙
차/제: 오영순 / 김민석

호실: 홍실 201호
발인: 03월 17일
장지: 영락묘역

故 박관순님 (여/69세)
주/부/모: 김원일 / 김원순, 김원복 / 내인수
차: 김세일

호실: 홍실 101호
발인: 03월 17일
장지: 영락묘역

심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입문의 1566-4499

한대종합상조 전속모범 노주현